

## 일본 정치소설의 수용과 한국 신소설의 다층화 - 구연학의 「설중매」와 스에히로 텃초<sup>1)</sup>의 □ 雪中梅 □ 를 중심으로<sup>2)</sup>

노 연 속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1. 들어가면서, 일본의 정치소설과 한국의 정치서사

#### 1.1. 근대정치운동과 소설 창작의 ‘결합’과 ‘분리’

구연학의 「설중매」는 일본의 정치소설가 스에히로(末広鉄腸)의 1886년

- 1) 末広鉄腸(1849~1896). 정치가. 소설가. 저널리스트. 본명 시게야스(重恭). 명치 8년 4월 ‘東京曙新聞’ 편집장. 10월에는 ‘朝野新聞’의 논설편집주임이 되지만, 두 신문 시대에 신문지조례에 의해 두 차례의 벌금 및 감금형에 처해진다. 14년 자유당의 결당과 함께 입당해서 ‘自由新聞’의 사설을 담당했지만, ‘板垣外遊’를 비판하고 탈당한다. 이즈음부터 병에 들어, 요양 중의 독서가 계기가 되어 □ 雪中梅 □ □ 花間鶯 □ 등을 내고 호평을 받는다. 23년 제 1회 중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8년에는 전원위원장에 추대되지만 다음해 2월 병으로 죽었다(三好行雄, 竹盛天雄, 吉田熙生, 浅井 清 편, □ □ 日本現代文学大事典 □ □, 明治書院, 平成 6年, 182쪽.).
- 2) 본고에서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하기에, 편의상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원문 그대로 표기하여 □ 雪中梅 □ 라 하고, 한국에서 번안된 작품은 순 한글 표기로 「설중매」라 나누어 칭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고에서 인용하는 자료의 대

작인 □□雪中梅(せつちゅうばい)□□를 번안한 작품으로 1908년 회동서관에서 발행되었다. 원작 □□雪中梅□□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소설로서, 당대 발생했던 자유민권운동과 그 운명을 같이 했다. 자유민권운동은 이른바 국회개설 운동으로<sup>3)</sup>, 국회개설을 촉구하는 상소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보급하는 상징적인 매개물로서 다수의 정치소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자유민권가의 손에 쓰여졌다. 이러한 배경가운데 □□雪中梅□□도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스에히로의 정치적 사상이 투입된 ‘전형적인 정치소설’의 하나였다. 스에히로는 이 작품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액자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2040년 국회개설을 기념하는 날에 그 즈음 발굴되었던 쿠니노 모토이(国野基) 비석에 대한 화제를 시작으로, 국회개설을 위해 투신했던 쿠니노의 일대기인 □□雪中梅□□와 □□花間鶯□□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밝히면서, 국회개설의 높은 가치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번안작 「설중매」는 작가가 활동하는 시대보다 십년 전인, 1890년대의 후반으로 내려가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청년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구연학의 「설중매」에서는 국회 개설을 축하하는 미래가 없으며, 현금의 조선 정치가 실질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놓인 것을 직시하고 있다. 구연학이 과거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통제된 미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미래를 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 국회 개설의 승리를 경축하는 □□雪中梅□□를 번안했다. 이 과정에서는 구연학은 정치소설이라는 표제어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신소설의 계열에서 이 정치소설의

상은 각각 「政治小説 雪中梅」, □□政治小説集 □□(2003, 岩波書店)과 「雪中梅」, □□新小説・翻案 小説□□(아세아문화사, 1978)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3) 坂本多加雄, □□明治國家の建設(1871-1890)□□, 中央公論新社, 1999, 235-237쪽. 「自由民権運動」, □□日本の歴史□□4. 자유민권운동은 당대 세계사와 연결되어 인식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 영국의 혁명, 프랑스 혁명 등과 나란히 대치되는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자유 민권 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인민의 참정권을 구하는 “국회의 개설(国会の開設)”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국민대다수의 요구였던 “지세의 삭감(地租の輕減)” 그리고 국권의 확립을 위한 “굴욕적인 조약의 개정(屈辱條約の改定)”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표제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본정치사에서 “□□雪中梅□□의 시대”<sup>4)</sup>가 있었다는 진술은 문학과 정치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필연성은 일본과 근접해있는 동아시아에서도 요청되었다. 원작 □□雪中梅□□는 1903년 중국에서 그리고 1908년 한국에서 각각 번안되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양계초가 이미 설과한 바 있는 소설의 효용론에 힘입어 정치소설의 입지가 높아진 상태였으며, 그 분위기 속에서 □□雪中梅□□는 번안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소설을 일종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정치의 전달 매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몽 교과서 또는 문명의 안내서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치소설은 한 마디로 “정치운동이 문학에 반영”<sup>5)</sup>된 결과물이다. 정치소설이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이 정치조직을 결성하고 정치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번안작에서는 정치소설의 핵심이 되는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의 정치소설이 근대정치운동과 소설 창작이 철저히 결합된 형태라면, 한국에서 번안된 정치소설은 근대정치운동이 빠진 소설의 가공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치운동과 소설 창작이 분리되어 있다.

형식적인 구성상 「설중매」와 원작의 가장 큰 차이는, 구연학이 상(上)과 하(下)로 나누어진 원작의 구성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단과 목차를 비롯하여 서문도 과감하게 삭제해 버렸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서문이 원작자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인이 쓴 것으로 이를 보아 번역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sup>6)</sup>, 근대초창기 소설에 대

4) 徳田秋江. 丸山真男, □□日本の思想□□, 岩波新書, 1961, 71쪽. (재인용)

5) 中村光夫, 고재석·김환기 역, □□일본 메이지 문화사□□, 동국대출판부, 2001, 71쪽.

6) 상(上)편의 서문을 쓴 자는 二宮態次郎(1865-1916)로 당시 신문기자였으며 宇和島藩士の 출신으로, 메이지 16년 상경해서 스에히로 텃초의 주선으로 {朝野新聞}에 입사한 바 있다. 그리고 □□雪中梅□□(下)의 서문에 노벨과 소설의 관계를 쓴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이미 당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가이자 스에히로에게 감화된 문인이었다. 오자키는 □□雪中梅□□의 서문에서 로맨스와 노벨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한, 특히 정치소설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소설의 의미 규정을 둘러싸고 많은 혼선을 빚어 온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구연학이 제목 앞에 달아 놓은 정치소설이라는 용어가, 소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르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공백의 기표로서 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중매」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설중매」는 신소설 계열이지만, 정치적 활동무대가 되는 독립협회를 당대 최초로 작품 속에 구현해 놓은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미리 말하자면, 「설중매」는 동시대에 발행된 박은식의 「서사건국지」(1907)와 함께 ‘정치소설 (political novel)’이라는 표제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크게 역사전기와 신소설의 층위를 관통하는 범주에서 ‘정치서사(political narrative)’로 묶어 볼 수 있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정치소설이라는 용어는 무분별하게 쓰인 경향이 있는데, 엄밀한 내부의 규정을 따랐다가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 용어가 담지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별도로 사용되었다.7) 그러므로 변안작 「설중매」는 일본의 정치소설과 성격이 다른 ‘조선적인’ 정치서사라 볼 수 있다.

## 1.2. 경성과 동경의 낙차, 독립협회와 자유민권운동

선행 연구에서 「설중매」가 이인직의 작품으로 알려지는 등 구연학이라는 작가를 비롯하여 「설중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전광용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그의 연구는 「설중매」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출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밝혀 놓고 있다.8)

---

바가 있는데, 이는 “텍초의 문학기해와 크게 떨어져있지 않”(越智治雄, 「政治小説における「ノベル」の意味—〇〇雪井梅〇〇と〇〇外務大臣〇〇, 〇〇近代文学成立期の研究〇〇 岩波書店, 1984. 299쪽.)은 것으로, 인정본을 채택하여 노벨로서의 정치소설을 완성시키려 했다.

7) 이에 관한 사항 및 이 시대의 서사양식에 관해서는, 권영민, 〇〇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〇〇, 서울대출판부, 1999, 89-96쪽.

그리고 최원식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독립협회를 소재로 채용한 것에 큰 긍정을 표명함과 동시에 작품에서 인용된 다산 정약용 전집 등 전통과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잠재된 역량을 과대하게 평가해 놓았다.<sup>9)</sup>

한편, 번안작 「설중매」를 연애소설로 보고, 원작 □□설중매□□에 비해 정치소설로서의 면모는 축소되었으나 연애소설로서의 면모가 확대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비교적 번안작의 가치를 고평해 놓은 연구<sup>10)</sup>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내용 없는 작품의 비교분석 및 번안된 「설중매」가 연애성 또한 원작에 비해 충분히 담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연애소설이라는 설정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치중한 반면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과하고 단지 남녀 결합의 결과를 연애의 성공으로 보는 단순한 도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그 이후 연구는 주로 「설중매」가 신소설 가운데 정치소설을 표방한 작품으로 번안되었다는 면에서 많은 주목을 하였으나, 대체로 “정치소설의 결여형태”<sup>11)</sup>라는 틀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라는 작품의 결말에 집중하여, 남녀의 결합과 가정의 형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sup>12)</sup> 원작의 경우 남녀의 인물들이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그려지는 데 반해, 번안작에서는 남녀가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 계몽의 중요성을 적절히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정치소설이 아닌 일반적인 신소설과 연관시켜, “가정 내 여성의 역할”<sup>13)</sup>을 제대로 그려놓은 작품이라 평하고 있다. 이

8) 전광용, 「『雪中梅』考」,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86. 316쪽.

9) 최원식, 「『雪中梅』 연구」, □□한국학 연구□□3,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1991. 3. 68쪽.

10) 菅光晴, 「『雪中梅』의 翻案樣相」,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11) 김윤식·정호응,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3쪽.

12) 표세만 □□셋츄카이□□와 □□설중매□□의 계몽주의-남여 인물조형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第61輯 2卷, 2004.

13) 표세만, 「한일 근대문학의 「정치」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정치소설과 신소설의 ‘남여’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13輯, 동아시아일본학회, 2005. 133쪽.

는 가정을 계몽한다는 작은 범주에서 의미부여를 하려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정치서사로서의 설중매의 맥락을 간과해버린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원작과 구연학의 「설중매」를 비교해 놓은 연구<sup>14)</sup>는, 단지 「설중매」의 특성을 언문일치의 사용이라는 문체를 지적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언문일치가 신소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형식적으로 「설중매」의 표면만을 관찰했을 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아직까지 구연학이 어떻게 원작을 입수하여 번안하게 되었는지, 그 번안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구연학의 이력은 다지리에 의해 간략히 정리된 바 있으나<sup>15)</sup>, 개화기의 작가로서 구연학의 입지는 미미하기만 하다. 이에 반해 스에히로에 대한 작가의 전기적 이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된 바 있다.<sup>16)</sup>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입각하여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일본 신소설의 연구자로 정평 높은 야나기(柳田泉)에 의해 이루어졌다. 야나기는 주인공 쿠니노가 기본적으로 작가의 “이상적 정치론을 발언하는 기관(理想的政治論を發言する機關)”<sup>17)</sup>으로 기능하며, 작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작가의 정치활동 및 정치연설의 반영물이라는 시각은 □□雪中梅□□의 연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작가의 정치적 행위(전기적 사실)와 작품의 연

14) 신근재 「末広鉄腸の □□雪中梅□□と具然学の □□雪中梅□□」, □□日韓近代小説の比較研究□□ 明治書院, 2006.102쪽.

15) 田尻浩幸 「신소설 □□은세계□□와 일본 정치소설」, □□어문연구□□ 8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12.182쪽. 구연학은 1874년생으로, 1904년 3월 종교의숙에 입학하여 다음 해 11월 퇴학을 당하고, 1907년 7월 군부번역관 서반입관 7급봉에 올랐다가 9월 군대해산으로 해임한다. 1908년 2월 내각주사 서반입관 승 6급봉, 같은 해 5월 번안소설 □□설중매□□를 발간하고, 12월 내각주사 서반입관 승5급봉, 1910년 6월 내각주사 서반입관 승4급봉에 되었다는 기록까지 그의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성구씨세보건지 五□□1989, 721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탐구당, 1972. 783쪽(재인용)).

16) 真辺美佐, □□末広鉄腸 研究□□, 梓出版社, 2006.

17) 柳田泉, 「末広鉄腸研究」, □□政治小説研究□□(中), 春秋社, 昭和10. 513쪽.

관성에 주목하여, 스에히로를 작중인물과 겹쳐보는 시각은 비교적 설득력 있게 다루어졌다. 실제로 스에히로는 당뇨병으로 하코네에서 요양한 적이 있으며, 이 시기에 쓰여진 □□雪中梅□□는 작가의 입장 및 본인이 스스로 겪었던 감옥의 체험 및 생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적 시각은 작품의 사실성을 중시한다. 이 사실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은 곧 인정소설적 요소에 천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인정소설적 요소는 기존 정치소설과 거리를 두며, 단순한 연애소설과는 다른 층위를 형성한다.

즉 □□雪中梅□□는 통상의 연애소설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연애의 성취가 도와주는 형태(政治活動を恋愛の成就が助けている形)”<sup>18)</sup>로서 정치활동과 연애행위가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 □□雪中梅□□가 지닌 “인정소설적 정치소설(人情小説的政治小説)”<sup>19)</sup>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하야시바라(林原純生)에 의해 구명된 바 있다. 그는 정치상황의 관념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보우치(坪内逍遙)의 □□소설신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도입방식에 있어서 인정세대소설과 차별적으로 반응, 오히려 상반된 인정소설풍의 정치소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고평한다. 인정소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적 질서를 거부”<sup>20)</sup>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부진은 원작 □□雪中梅□□와 □□花間鶯□□ 그리고 변안작 「설중매」, 이 세 작품을 각각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놓고, 이 가운데 변안작 「설중매」는 근대적 요소가 미달된 작품이라 평하고 있다. 원작 □□雪中梅□□는 연속해서 □□花間鶯□□이라는 작품과 이어짐으로써, 정치소설로서의 완성도를 보인 반면, 변안작 「설중매」는 중도하차한 형태로, 정치와 연애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정치소설의 도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sup>21)</sup>

요컨대, 기존의 연구에서는 변안작 「설중매」가 변안되었던 정치적 여건

18) 和田繁二郎, 「□□雪中梅□□ □□花間鶯□□ 試論」, □□立命館文学□□264, 1967, 207쪽.

19) 越智治雄, 「政治小説における「ノベル」の意味- □□雪中梅□□と □□外務大臣□□」, 岩波書店, 1984. 298쪽.

20) 林原純生, 「政治小説 ‘雪中梅’を論ず」, □□日本文学□□ vol.40, 1991. 23쪽.

21) 南富鎮, □□文学の植民地主義-近代朝鮮の風景と記憶□□, 世界思想史, 2006. 218쪽.

을 간과함으로써, 그 번안작이 보여준 가능성 또한 배제하고 있다. 「설중매」가 출간된 1908년은 일명 애국계몽기로 좁혀볼 수 있는 시기로,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점차 제국의 침략정책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국채보상운동 등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민족 대단결의 운동이 실시되던 해였다. 이 민족 대 단결의 현상은 십년 전 만민공동회를 결성하여 서간도반환을 성공시켰던 사례를 환기시켜준다. 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합작되어 있었고 황제의 명으로 해산되기까지 그 운명을 같이 했다. 구연학이 국회개설을 성취해 낸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과 버금가는 국내 사례로 의회운동을 추진했던 독립협회를 끌고 나온 것은 상당히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정치소설의 내적 층위, 이질적인 근대의 감성과 정치적 감각

### 2.1. 신문과 연설, 새로운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통한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

일본의 정치적 근대화를 일구어낸 사건은, 메이지기 이후에 도입된 연설장의 풍경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연설과 토론이라는 근대 문명의 정치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신문도 정치를 다루는 대신문과 잡다한 오락거리를 다루는 소신문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sup>22)</sup> 그만큼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참여하려는 대세의 급증으로 정치적 공론장은 근대 국가의 필연적인 요건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에 급격히 수용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던 조선의 경우, 일본 정치적인 풍조가 그대로

22) 「大新聞と小新聞」, □□日本の歴史□□, 39쪽. 메이지 초기 일본의 신문에 국사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활동중심의 정치 기관지인 대신문과 오락의 활동을 중심으로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정사나 스캔들 등을 전하는 소신문의 구별이 있었다.

수입되었다. 이는 주로 동경유학생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획기적인 일은, 일본에서의 수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서구유학파의 대두로 근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언론과 정치적 기관 및 연설이 표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독립신문의 창간과 독립협회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이후에 황성신문을 주축으로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사안들에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sup>23)</sup>, ‘의회 개설의 추진’이라는 개혁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 의회 개설의 추구라는 특성은, 구연학이 원작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를 정치적인 무대로 설정했던 이유를 알게 한다. 실제로 자유민권운동과 교차되었던 조선 내부의 사건은 갑신정변(1884)이나<sup>24)</sup>, 자유민권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 개설에 있었던 바, 의회를 설립할 권리를 논하고 있던 정치적인 현장은 바로 독립협회(1896)에서 목도되었던 것이다.<sup>25)</sup> 번안작에서 주인공 이태순이 국사범의 혐의로 일본으로 피신했다는 풍설과 독립회관에서 정치 연설을 하는 대목은, 조선에서 가능한 정치적인 사건의 설정과 무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던 의회의 초기 모델을 공론화된 연설장으로 대체시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곧 연설장의 출범은 의회의 출현

23) 최기영, 「러일전쟁 발발 직후 지식인의 정치개혁론-1904년의 ‘정치경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50쪽.

24) 牧原憲夫, 「民権と国権」, □□日本の歴史□□, 週刊朝日百科, 昭和63.3.20. 오오이켄다로우(大井憲太郎), 고바야시 쿠스오(小林樟雄), 이소야마 세이베에(磯山清兵衛) 등이 나중에 오사카 사건(1885)으로 불리는 반정부계획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김옥균 등을 지원해서 수구파로 친(親)청국파의 사대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중주국을 자인하는 청국과 일본의 대립을 격화시켜 그 혼란을 틈타 일본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꾸몄지만, 미수로 끝남.

25) 송건호·강만길, □□한국 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1982. 29쪽. 독립협회의 의회개설운동은 1898년 4월 3일에 독립협회 토론회의 주제를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으로 정하여 토론을 하고 그 해 4월 30일자 □□독립신문□□에 의회설립의 필요성을 해설하는 장문의 논설을 게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됨.

을 예고해주기 때문이다.

문간에순검이 서서 드러가는사람마다 불너성명을 조사하다가 학도갓치 보이는사람은 그 거주와통호를 슈첩에적고 분명히 학도가 아님을변명후 후에 입장하게허더라 원리 언의정치연설이든지 1)그 발기훈자가 연설의문제 와 대의를 일일이먼저 고히야 치안의방향이 될듯하면 인가하지아니하고 또 2)연설장에 경찰관이 출장하야 언론의과격함이 있으면 중지시키고 방청 하는사람을 허산케하니 대대 광무년간에 외국유학한 싱도중 정치를 개량 하고 국세를 유지코져하야 세력이넘우 강대하며 언론이또한 과격하야 일 세를 경동하고 정부를 공격허거늘 이럼으로 정부에서 틀문을 데명하야 단 속을 엄중히 하는고로 각처연설회와 각학교토론회까지 모다 금지하니 이 는 빙설이 드을에 답혀 초목이령락함과 갖하야 참담헌괴상이 잇더라<sup>26)</sup> (강 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독립회관에 연설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고 물려든 청중 들을, 순검이 하나하나 검문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펼 치는 학도를 색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의회개설안을 두고 독립협회와 대립했던 정부의 입장과 엄격했던 언론의 통제 현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참 가자는 연설 전에 반드시 1)연설의 주제와 내용을 밝히고 미리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연설장에는 항상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이들의 연설을 철저 히 감시하는 체계로 구성된, 비교적 까다로운 연설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메이지10년대에 민권론자가 정치연설을 시작하여 반정부적인 연설집회가 성행하고<sup>27)</sup>, 이에 정부의 통제가 뒤따랐던 시대적 정황에 대한

26) 具然學, 「雪中梅」, □□新小説(譯)小説 3□□, 亞細亞文化史, 1978. 7쪽.  
27) 메이지 10년대 연설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兵藤裕己, 「明治のパフォー マンスー政治演説と芸能」, □□感性的近代□□, 岩波書店, 2002, 149-167쪽. 특히 연설(speech) 에 대하여, “지식이나 정치의 대중화라는 문명개화의 시대 기운 속에서, 처음으로 필요성이 인식된 언어행위”(149쪽)였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은 원작에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과정은 위에서 보듯 변안작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된다. 다만 정치소설의 시작이 정치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변안작에서 당대의 독자가 정치지식의 흡수를 할 만한 것으로 내세울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변안작은 정치지식의 전달과 선동을 수행하는 목적과 별도로, 19세기 말에 존재했던 과거의 정치문화를 상기시켜, 20세기 초에 재현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연설은 처음부터 정치성을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연설이 정치색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 내부에서의 계몽(전쟁이나 내란)에 따른 결과였다.<sup>28)</sup> 초기 연설은 크게 정당 및 조직의 구성과 정치운동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의 연설과, 학문과 계몽의 연장선에서 교육의 방편으로서 연설로 그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변안작 「설중매」는 후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기표로서의 연설만을 보여주었다.

신용하는 독립협회의 전개과정을 3단계[독립문건립운동기(1896~1897. 8.28.) - 토론회 계몽운동기(1897. 8.29.~1898. 2.20.)- 정치개혁운동기(1898.2.21.~12.25.)]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는데,<sup>29)</sup> 「설중매」는 토론회 계몽운동기를 배경으로 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는 실제로 정치성의 강조보다는 계몽을 목적으로 토론회가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계몽(enlightenment)은 말 그대로 ‘빛의 세계로의 인도’를 의미한다. 정치적인 권력의 장을 펼쳐 내기 전 단계에서 모두에게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당대 지식인의 기본적인 과제였다.

여기서 토론회(debating society)는 서재필이 주도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독립관”<sup>30)</sup>에서 개최된 것으로, 독립협회의 가담자가 아니라도 민중이 연설장에 나아가 연설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다.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회의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政治的 大會

28) 小森陽一, □□일본어의 근대□□, 정선태 역, 소명출판, 2003, 62쪽.

29) 신용하, □□한국근대지성사연구□□, 서울대출판부, 2005, 177쪽.

30) 위의 책, 182쪽.

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인식되었다. 독립협회는 어디까지나 “知識情報을 배포하는 중심기관”<sup>31)</sup>으로 왕권의 타도라는 혐의로 붕괴되기까지 과격한 주의보다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 지식공동체의 설계를 목표로 했다. 요컨대 「설중매」에서 독립협회에서 소속된 인물로 나오는 이태순은 제 2기에 정채되어 있는 자로, 실질적으로 정치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기까지는 건너오지 못한 채<sup>32)</sup>, 독립협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이 끝나게 된다.

표면적으로 번안작 「설중매」는 정치적 실행이 없는 정치서사에 그치고 말았으며, 정치조직이나 행위가 없는 근대 정치의 언설만이 역설적으로 강조되었다. 보수적이며 인정이 많은 중도파 이태순의 성격은 곧 전근대성을 대변하며, 전근대적인 인물이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모순과 함께, 양학을 익혀 정치운동을 하고자 했던 근대성이 수사로 그치고 마는 것을 보여 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번안작 「설중매」는 근대적인 장치의 리얼리티가 손상된 채, 단지 그 소재의 나열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설중매」에 언급된 근대성은 실제로 있는 것을 ‘재현하는 근대성’이 아니라 없는 것을 소개하는, 일명 ‘보여주기(showing)의 근대성’의 초기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구연학이 근대적인 의장을 벗기고 무엇을 채우려 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조선의 전근대성을 초월하지 못한 채, 번역이 불가능했던 한계와 작품 속에서 조선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시도의 의의를 재검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문은 일차적으로 정보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신문의 목적이 계몽성에 놓였을 때, 곧 신문의 기사는 논설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신문은 “독자의 정치적인 관심”<sup>33)</sup>이 증폭함에 따라 그 수요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정

31) “The Independence Club”, *The Korean Repository*, 1898년 8월호, 286쪽. (위의 책, 184쪽. 재인용)

32)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3, 48쪽. 독립협회는 원래 친미 계열의 양반관료들이 주축이 된 계몽운동단체로 출발하여 1898년 초부터 반러시아 운동을 시작으로 정치단체로 변신하였다.

치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소리 없는 발’로서 지역적인 경계를 허무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뜻을 공유하는 주요 인물들이 각 지방에서 나온 정치논설을 서로 교류하며 읽어보고 통탄하는 대목에서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더욱이 원작에서는 연설문까지 그대로 삽입되어 낭독하는 대목(下, 437쪽)이 실려 있어, 근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의회 설립을 향한 위로부터의 정치 운동과 인민에게 정치사상을 공급하여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펼치고자하는 미묘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함께, 정치담론의 생산 및 행동을 추진해나가는 정치적 감각의 미세한 경계들을 보여준다.

원작과 동일하게, 변안작 「설중매」의 첫 장면은, 여주인공이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병든 어머니가 잠이 들었을 때,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신문 읽기’인 여주인공의 행위는, 근대인의 일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문이라는 매체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일상에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작에서 신문은 정치연설의 논설을 실은 대신문과 향간의 풍설을 작위적으로 실어놓은 소신문으로 나누어 언급되는데, 각각 정치담론을 논하는 대목에서 논설을 소리 내서 낭독하는 대목으로, 그리고 여주인공을 비방하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대목으로 상세하게 그 신문의 기능이 언급되고 있다. 텍스트의 전개과정에서 신문의 역할은, 사건의 기술을 최대한 압축시키기도 하며<sup>34)</sup>, 당대 사회 현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대신문/독립신문의 경우, 논설란)하기도 하며, 주인공을 위기로 몰아넣기(소신문/독립신문의 경우, 잡보란)도 한다.

33) 平田由美, 「<議論する公衆>の登場」, □□近代知の成立□□, 岩波書店, 2002, 205쪽.

34) 가령, 원작에서와 같이, 변안작에는 다음과 같이 신문기사를 통해 인물의 행위를 압축하는 대목이 있다.

오늘신문에 큰일났네 또 사람을놀리고 나중엔 칼싸우으랴고 아니 그릇말아닐세 이 신문잡보게 서칭이 신문을집어보니 데목에 량씨구류라 헛얏는디 근력독립협회중에 유명한 리태순씨는 작일오전십시에 상동려관에서 잡히고 문전철씨는 일본에 유학홀츠로 부산까지가서 룬선회사에서 잡혀 경성경무부서로 보냈었다는 풍설이잇는디 그놈용인즉 이상헌서찰이잇서 국스범에 반연이잇는듯 헛다헛나 진위가 분명치못하다 헛얏더라(27-28) (강조는 인용자)

한낱우직흔 리태순과 암약흔 녀즈를엇지 처치홀도리가 업스리오 흥면서 입을송교관의귀에 더이고 **약시약시 흐라**하니 송교관이 올치 ㉠그 신문괴 즈는 선생과 친분도잇슬뿐아니라 사름을비방흥기 도화흥느니 부탁만흥면 아니될리치가업스니 지금가는길에 말흥야보리로다 하상천이 또 송교관다 러여보게 그리흥고 또 **약시약시흥게** 송교관이 고기를 싣덕이며 올치그러 치 썩될일이지 하상천이 또 말흥되 그리흥고 **그 부비는 약시약시흥게** (『설 중매』, 64쪽) (밑줄과 강조표기는 인용자)

「상대가 바보스럽게 정직한 쿠니노와 일개의 여자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마즈다군, 잠시 귀 좀 빌리세. **여차여차 알았는가.** 마즈다 「과연 흥미롭군 ㉡저 신문은 선생과 연고가 있고 비방을 좋아하는지라 속히 기재할 것이라. 지금 가서 부탁해보지요. 가와기시 「아니아니 아직 일이 있네 **여차여차하면 더 좋지 않은가** 마즈다 「묘계묘계라 가와기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마즈다 「응응 한데 ㉢그 우메키치라는 것은 이 즈음 찻집에서 만난 여자지요. 그것이. 과연. 흠, 이전 쿠니노와 과연. 그렇다면 충분히 교사(敎唆) 할테니까. 좋았어. 과연. 그렇다. 가와기시 「알았는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은 이렇게 한다.** ㉣마즈다 「그렇다면 뒷까지 문서로 하고 후지이에게 지불하도록 합니까. 가와기시 「잘 알아냈군. 마즈다 「어떻든 선생의 처치는 가혹하니까 상대가 되는 자는 대단히 곤란하리다. 가와기시 「하찮은 인정에 얽매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어. 자네가 한 편에서 선동하고 해준다면 여자는 내가 잘 속여 볼 심산이다. 곧 문밖에서 나는 방울 소리 지령 지령. 외치고 말하길, 오늘 석간신문 조야신문 가와기시 「정사상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일을 해도 기관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쿠니노도 조금은 세간에 후원자가 있는 남자니까 조심해서 조야신문이나 개진에 탐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이야<sup>35)</sup> ( □□雪中梅

35) 末広鉄腸, 『政治小説 雪中梅』, □□政治小説集□□, 山田俊治校注, 岩波書店, 2003. 472-473쪽.

「相手か馬鹿正直な国野と一人の女だもの 何とでも処置があらふちやアないか 松田君一寸と耳を貸せ **斯ダ分つたか** 松 「成程面白い アノ新聞紙は先生に縁故がある上に讒謗が好きたから直に書くに相違ない 今帰り掛に頼んで見ませう 川 「イヤへ まだ用がある **斯ダ善い**

□□, 472-473쪽)(밑줄과 강조표기는 인용자)

위의 두 인용문은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기자를 시켜 하루에 대한(장매선에 대한) 허위 기사를 유폐하려는 일을 꾸미는 대목으로, 번안작은 하상천이 제기한 음모의 방식 세 가지를 “약시약시”하라는 말로만 처리하여 그 전모를 감추고 있는 반면, 원작에서는 세 가지의 음모 과정(㉠신문사에 하루의 행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 ㉡우메키치라는 기생을 이용하여 쿠니노를 부정한 이로 만드는 일. 이것은 두 가지 방향: 하루의 부정한 행실을 쿠니노의 귀에 들어가게 하기. 그리고 쿠니노가 우메키치와 놀았던 일을 하루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일. ㉢모든 경비를 하루 숙부인 후지이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일)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특히 원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대 신문매체와 정치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항이다. 신문은 곧 정치의 소식을 다루는 기관으로, 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사적인 음모를 비롯하여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가와기시의 발언은 당대 정치 세태가 언론과 맞물려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 2.2. 사회·문화제도의 개량과 정당을 구성하는 힘의 차이

1907년에 제정된 광무신문지법은 일본의 신문지조례와 유사한 형태로, 언론을 규제하고 모든 출판물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속의 분위기는 원작과 동일하게 번안작 「설중매」에서 남주인공이 당시 감시망에 걸려 검

---

か 松 「妙計へ 川 「夫れから斯するのだ 松 「ウンへ ハテ夫の梅吉と云ふ奴は此の間売茶で逢た女ですネ 彼れか 成程 フーン 以前国野と ナールホド 夫人なら能く吹き込んだら ヨシへ ナール程 ソーダ 川 「分つたか さうして其の費用は斯するのだ 松 「夫人なら纏頭まで書付にして藤井に払はせるのですか 川 「知れたことヨ 松 「如何も先生の処置は巖酷だから相手になつた人は随分難儀だ 川 「些々たる人情に係はる様では何事も出来る氣遣ひはない 君が一方さへ煽動して呉れたら女は僕が旨く欺し付ける心算だ 忽ち聞く門外鈴の音チリンへ叫んで曰く 今日 毎夕新聞 絵入朝野新聞 川 「政事上のことは言ふまでもなく 何事を為すにも機期かなければならぬものだ 其の内国野も少しは世間に最負のある男だから 能く気を付けて 絵入朝野や改進に嗅ぎ出されぬ様に注意すべきことサ (강조는 인용자)

거되는 사태로 크게 확대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태순(원작에서 쿠니노)은 친구에게 줄 다이아몬드라는 영어사전의 명을 쓰면서, 다이아마이트라고 잘못 썼다가, 다시 지우고 바르게 필기하나, 그 지웠던 자국이 은밀한 테러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아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적인 음모나 과격한 폭동을 경계하고자 했던 강경한 당의 방침은, 개인의 사적인 편지까지 일일이 검열하는 것으로 극대화되고 있다.

원작에서 주인공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대목은, 감옥의 외부조건 묘사에서 감옥의 내부 수감자들의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작가 스에히로가 실제로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검거되었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열악한 감옥의 환경을 고발하고 당대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정치적 탄압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번안작에서 감옥의 묘사는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태순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옥중의 귀신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나약한 심경만을 드러내고, 작가 구연학은 문명사회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감옥의 개량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36)</sup>

조선에서 감옥개량에 대한 의론은 누차 제기된 바 있는데, 독립신문 논설란에 감옥의 죄수를 인터뷰하여 그 정황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으며<sup>37)</sup>, 황성신문의 정치경장안의 조항 속에는 감옥의 위생 상태

36) 룡동설한에도 불을 썩지아니하고 담노 하나로 칩고긴밤을 지너며 북풍바지에 류리창으로 눈이 날녀들어오미 수족이 얼어 터지고 삼복염턴에는 조금도 바름이 통치 못하며 남향향방에 털창으로 일광이 너러썩히되 피홀곳이 업서 가마에 씨는듯하고 (….) 서양에서도 전에는 이러하더니 (벤삼)이라 호는사람이 나서 옥을 짓는법과 죄인 두는법을 기량함미 각국이 다 본밧아 일신히 기량하고 인호야 그후로 죄인도 감심 되앗다호니 우리나라도 급허옥을 기량함이 도호리로디(34)

37) 「죄수정형」, □□독립신문□□ 광무 3년 3월 15일 「죄수정형(전호 연속)」, □□독립신문□□ 광무 3년 3월 16일. 옥정에 호로 콩나물 살문 소금국 두 그릇세 뉘와 돌반직이 흐 흰밥 피주발에 칠흙 그릇식 두째 주는 것 바라고 긴긴 희를 보너니(……)거쳐와 식스 범절 줍 달니 마련 되오면 국가에 만행일듯 호오며 이번 경스에 아모조록 성의디로 광탕지던을 베푸시기를 볼으나이다

나 시설의 개선이 포함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였던 감옥 개량에 대한 사항은, 번안작에서 원작에서 언급된 사항이긴 하나, 서양의 사상이 벤담의 원형감옥론 등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손수건은 어제 이제까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즈다 아무개로부터 차입되어 보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위난에 처해서 뜻이 변할 것이라 여겨, 백반으로 글씨를 베껴 바르게 훈계할 뜻을 빚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송백은 설상에서도 그 절개를 나타내니, 장부는 곤란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그 뜻을 굳건히 하라는 의미로다. 예부터 영웅호걸의 사업의 대성은 모두 간난신고의 결과일 터. 이제까지 국내외의 서적을 읽고 잘 알고 있으면서 일시 나약한 마음이 일어난 것은 내 생각해도 한없이 비겁한 것이다. 그건 그렇고 용맹한 이 시는 누구의 시인가 내 처지에 일생의 양사(훌륭한 스승)라. **옛날 존 하워드**는 스스로 좋아서 감옥에 들어가 그 은덕을 구미제국에 퍼뜨렸다고 들었는데 **나도 타일에 뜻을 가지고 정사상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감옥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리라**. 유쾌하게 전후를 잇고, 큰 소리가 일어나 놀라서 눈을 뜨니 지금까지 보였던 감옥의 형상은 일시에 사라지고 계곡의 물소리는 도도하게 베개를 울리니 “그런데 지금에는 감옥에 있었던 때가 꿈이었던가.”<sup>38)</sup>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원작의 일부로, 주인공은 수감 중에 잠시 의기소침해졌다가, 하루의 격려편지를 받고 기운을 넘과 동시에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시

38) 此の手巾は 昨日 是れまで名前を知らぬ松田某より差入れ呉れたるものなるが サテは我が危難に逢ひて 志を變ずることもあらんと思ひ 明器にて書寫し 規戒の意を寓せしものと見える 如何にも松柏は雪霜に逢ひて其の節操を現はし 丈夫は困難に當る毎に愈よ其の 志を堅くする 訳だ 昔しより **英雄豪傑の事業を大成せしは皆艱難辛苦の結果**だと云ふことは 是れまで内外の書を読んで能く知て居ながら 一時女々しき心を起せしは我れ乍ら不覺千萬なり 扱も勇々しき此の歌は何人の吟詠なるか 我が身に取つては **一生の良師**チャ 昔しジョンホアイトは自ら好んで獄に入り 其の恩徳を歐洲諸國に流せしと聞く 我れも他日 **志を得て政事に立ちもせば第一番に獄制の改革を主張せん** 愉快々々と前後を忘れて大声を發せしに驚きて眼を開けば 今まで見えし獄屋の形は一時に消失して谷川の水聲は滔々として枕に響けりハテ今のは獄内に居つた時の夢であつたか (400-401)

련을 바탕으로 정치 사업에 더욱 투신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밖으로 나가면 감옥을 개량할 뜻을 밝히는데, 서구식 감옥개량의 사례를 들어 감옥의 개선은 곧 세계적인 문명국의 추세로, 문명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사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원작의 상편에서 이와 같이 감옥의 개량이 언급된 데 이어, 하편에서는 연극장의 개량이 사회 문명의 수준을 높이는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연학은 연극장의 개량을 논하는 부분을 번역하면서, 소설의 무대가 되는 19세기말에 존재하지 않았던, 20세기 초의 연극장의 광경을 삽입해 놓았다. 독립협회를 인물의 활동무대로 설정한 이상,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시대착오를 거치면서까지 변안해놓은 연유는 무엇일까. 구연학은 최대한의 현실적인 여건, 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공간의 역사를 끌어당겨, 최대한 원작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은 순전히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선식’의 여건 나열이다. 구연학은 조선의 연극장이 그 외관만 서양식의 모형이지, 기존의 구품은 여전하여 “리도령이니 춘양이니 흥낙잡설”을 늘어놓으며 “썩두니 무둥이니 의미없는 유희”(49)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변안작에서 연극이 연설이나 소설보다 풍속개량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정치사회의 개량 못지않게 연희(演戲)의 개량도 필요하다고 압축된 부분은, 원작에서 연극은 서구식의 풍조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문화영역으로 그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매체로 중요할 뿐더러, 연극 내용에 있어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극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의 방향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주인공의 주장과 함께, 그 자신이 평소 생각해왔다는 연극시나리오를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에게는 예전부터 한 개의 고안이 있었는데, 기원전 수백 년이라든가 회랍에 한 왕국이 있어 그 왕은 현명하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풍을 배우고 국민의회를 열었다고도, 당시 국중에 정부당과 국민당의 두 개가 있어, 국민당은 다음 회에 세력을 증가하고 정부당도 조

금 가지고 남은 것을 겸하는 모양으로 온 것으로, 재상은 내각에서 회의를 열고 이십년간 유지했던 정권을 국민당에게 넘겨준 것은 유감일지라도, 옛 말에도 그것을 잡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것을 주라고 말한 것도 있고, (어찌 되었든) 국민당에는 일시 인망이 있었지만 정사상의 경험이 부족해서 도저히 충분히 내각을 조직할 수 없었지. 한번 그것에 지위를 양도하고 그의 하는 바를 보았지만, (결국은) 상책이 되어 중의를 정해서 일동 사표를 내고 이어 국민당의 내각이 되고 생각했던 대로 신내각에는 인물의 부족보다 무슨 일도 통합이 되지 않고 재차 정부당의 세력을 얻은 모양이 되었지만 그 신진교대의 사이에 제도법률도 크게 개량되어 국민당도 최초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실력을 양성하여 결국 정당정치 단서를 열고 일국 다음해에 번성하고 인민은 모두 국왕의 보위 만세를 축하한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일세.<sup>39)</sup>

위의 인용문은 쿠니노가 연극 개량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연극 무대에 올릴만한 시나리오로서 자신이 고안한 연극의 각본을 들려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가상의 줄거리는 그리스 정치사에 배경을 두고 있지만, 상호 경쟁하는 두 당을 설정하여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라도 보다 완벽한 정당정치를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국내 의회 정치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작가의 정치

39) 「僕には兼て一つの考案がありますか紀元前何百年とかに希臘に一の王国があり 其の王は賢明の聞えある人で「アゼン」や「スハルタ」の風を學んで國民會議を開きたるも當時國中に政府黨も些ト持て余し兼ぬる様になつて來たものだから宰相は内閣にて會議を開き 二十年も維持した政權を國民黨に渡すのは遺憾の様なれど 古語にも之れを取らんと欲すれば先づ之れを与へよ と云ふこともあり 國民黨には一時人望があれども政事上の經驗に乏しいからとても連も十分に内閣を組織することは出来まい 一度之に地位を讓りて其の為す所を見るが上策ならんとて 衆議之に一決し 一同辭表を出だし 遂に國民黨の内閣になりした 果して新内閣には人物の乏しきより何事も纏りか付かず 再び政府黨の勢力を得る様になりしが 其の新陳交代の間に制度法律も大に改良に就き 國民黨も最初の失敗に懲りて自ら実力を養ひ 遂に政黨政治の端緒を開き 一國次第に繁盛して人民は尽とく國王の宝祚万歳を祝する ト云ふ筋書にした いものだ」(452-453)

의식이 투사되어 있다. 요컨대 연극 또한 정치사상의 유용한 보급 수단으로, 구습의 폐허가 만연한 현재의 잡극을 대신하여, 정치적으로 진보한 국가 설계를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을 그리는 연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치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번안작에서 주인공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을 하는 것은 거의 묘사되지 않았는데, 연설 이후 펼쳐지는 정치적 행적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지회를 조직 및 설립을 위해 각기 지방이나 경성으로 이동하는 사항뿐이다.<sup>40)</sup> 하지만 이것도 미처 목적을 이루기 전에, 경성에 올라온 이태순은 장매선과의 사건에 휘말려 정치적 활동을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그나마 원작에서와 비견될 정도로 당대 정치적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대목은 역시나 연설한 내용의 기술부분이다. 정당을 구성하고 의회를 조직하는 일은, 하루에 먼 길을 갈 수 없듯이, 장기간에 추진해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여 달성해내야 한다는 진보적인 중간파의 정치적 입장이 그대로 번안되어 있다. 물론 보다 세부적인 것은 원작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몇 차례의 개량소식을 곧잘 순수한 정당 되기로 (삼고) 국회의 필요에 응하는 희망이 없지 않은 당시에 나 같은 사람도 은밀히 전도를 향한 개량의 의견을 말한다면 ①제일은 소단결을 해산하고 대단결하기. ②제이는 박식한 학자와 실제가를 당중에 망리하고 활발한 운동을 시도해보기. ③제삼은 막연한 사실에 기인해서 격렬한 파괴의 성질을 띠지 않기 언론을 제지하고 전국의 정사사상을 불러일으키기. ④제사는 당중에 취해 입법 행정의 사무를 조사하고 정당한 조리가 있게 하기. 이에 언제라도 국가의 대사에 상응해서 만족되도록 준비를 정돈하기. 생각건대 정당은 반드시 이같이 되어야 한다. 민간에 이 같은 정당이 없는 이상에 가령 국회가

40) “문전철은 강순현과 지회를조직홀일로 퍼쥬디방으로 향햏야가고 리태순과 남덕쥬은 경성으로올나오며 양인의 지회설립방법도 리약이호고 근일경성형편도 문답홀식”(47)

설립되어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익을 실제로 볼 수 없을 것이다.<sup>41)</sup>

①제일 학자와 실제가의 협화(협력과 화합)를 구하기. 전체에 정당이 사분오열하고 결합을 하는 능력이 없고 말았던 것은 필요한 학문을 하는 것과 세상물정에 익은 것과 상호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인정세대에 어두운 것)이 원인이다. 소이(약간의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를 위해서 분주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해야만 하는 일대 요점이 된다. ②제이 담당한 봉건의 미몽을 깨기. 우리들은 구주의 남자이다. 우리들은 오익(奥羽)<sup>42)</sup>의 인물이다. 토지에 의해 서로 결합하는 것은 메이지 13,4년 경의 상태였지만, 이 버릇은 지금에 이를 때까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 완루(완고하고 고루함)한 응고물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면 결코 진정한 정당의 성립을 볼 수 없다. 봉건의 분자는 가장 입헌정체에 방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제삼 격렬한 언론에 따라 하층인민의 열심을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정사가(정치가)의 일시 방편이기는 하나 이것을 위해서 해로운 독을 앞날에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활동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생기게 한다. 이는 장래 세계의 유지자가 이 같이 거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④제사는 막연한 의론을 배척하고 실제의 사업을 조사하기. 이에 우리들의 주의를 실지에 관철할 준비를 정돈하는 것은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철학 상의 공리는 마치 그것을 정사 상에 관계없는 학자의 이견과 겨루는 것(언론 상에서 충분히 담화하는 것)과 같다. 다른 지방의 민

41) 歳月を経過するに従ひ数回の改良沙汰を歴て純然たる政党となり 以て国会の必要に应ず当时余の如きも苟かに前途に向て之れが改良の意見を持せり (謹聴) 第一は小団結を解散して大団結となし 第二は博く学者と實際家を党中に罔羅して活潑なる運轉を試み 第三は空漠にして事實に基かず激烈にして破壊の性質を帯ぶる 言論を制止して全国の政事思想を呼起し 第四は党中に就て立法行政の事務を調査し井々と条理あらしめ 以て何時にても國家の大事を担当するに足るべき準備を整頓するにあり 思惟へらく 政党は必ず比くの如くならざるべからず 民間に此くの如き政党なき以上は仮令ひ国会の設立に會ふとも吾輩の期待するが如き利益を實際に目撃する能はざるべきなりと(大喝采) (356)

42) 奥羽(おうう): 옛날의 陸奥(むつ, 무츠), 出羽(でわ, 데와)의 두 지방. 현재의 青森(あおもり, 아오모리), 岩手(いわて, 이와테), 山形(やまがた, 야마가타), 秋田(あきた, 아키타), 宮城(みやぎ, 미야기), 福島(ふくしま, 후쿠시마)의 여섯 개의 현(県).

정을 알고 해외의 형세를 알 것. 제도 법률을 시작으로 군정 경찰보다 철도 전신 등의 처치(처리)와 같이 그것을 계획하고 당당한 조리로 않는다면 국회의 설립도 결코 개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오늘날 제군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네 가지에 주의해서 국회 준비에 착수하는데 있다.43) (번호처리는 인용자)

위의 연설문의 요지는 정당의 개선 사항을 밝히는 부분으로, 번안작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원작을 압축한 번안작에서 이태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회규모를 개량할 방침을 제시하는데 1)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 할 것, 2)학식 있는 사람을 써서 활발한 운동전개 할 것, 3)온건한 입장에서 정치사상 조성하고 4)회중에 과정을 나누어 입법행정의 사무를 조사하여 국가의 대사를 담당할 준비 및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구성을 통해서 협회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선행과제로 1)학문가와 실지가의 화동, 2)문벌 지키는 부패한 사상 철폐, 3)격렬한 언론 타파

---

43) 第一 學者實際家の協和を求む 前年政黨の四分五裂して結合を為す能はざりしものは 要するに **學問あるものと世故に慣るもの**と互に氷炭の勢ありした因なり 小異を棄てて大同を求むるは 後來社會の爲めに奔走するもの 注意すべき一大要点なり **第二** 務めて封建の迷夢を破る 我々は九州男子なり 我々は奥羽の人物なりと云ひ 土地に因つて相結合したるは 明治十三年頃の有様なりしが 此の習氣は今日に至るまで未だ全く洗除する能はざるもの 如し 頑陋の癡固物を打破するに非らずんば 決して眞成なる政黨の成立を見るべからず 封建の分子は最も立憲政体に妨害あることを知らざるべからず **第三** 激烈の言論に因て下等人民の熱心を引起すは 亦政事家が一時の方便なれども 之が爲めに毒害を後日に流し 動もすれば意外の結果を生ずるに至る 余は 後來世の有志者が此くの如き挙動あることを欲せざるなり **第四** は空漠の議論を排斥して 實際の事業を調査し 以て我々の主義を實地に貫徹するの準備を整ふるは 最も今日の必要とする所なり 哲學上の空理は 姑く之を政事上に關係なき學者の抵掌に付して可なり 地方の民情を知り 海外の形勢に達し 制度法律を始め 軍政警察より 鉄道電信等の処置の如き 之を計畫して 井々条理あるに非らざれば 國會の設立に逢ふも 決して之が改良の目的を達する能はざるべし 余の今日諸君に望む所は 此の四者に注意して 國會の準備に着手するに在り(喝采) (367-368)

를 말한다. 요컨대 이태순의 정치적 입장은 오로지 “공론을 쫓아 정치를 개량”(20)하는 것이다. 과격한 수단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인민을 분발시켜 “국가의 유지자”(21)로 만들고, 공론을 균일하게 하여 “완전한 협회”를 만들자는 이론이 작품 전반에 우세하게 전개된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국회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유민권운동의 추진사항가운데 대동단결의 흐름이 존재했다.<sup>44)</sup> 단합을 긴급한 과제로서 언급하고 있는 쿠니노의 연설은 현세의 추이를 반영한 거울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 스에히로가 실제로 정치적 참여를 했던 인물이라는 데서 그 사실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 작가적 경험의 차이는 곧 작품의 역량 차이로 전환된다. 즉 정당을 조성하는 실제 상황의 경험은, 작품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추진력의 격차를 불러왔다. 번안작은 정치적인 활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의 정치 행태를 표면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원작과 번안작은 둘 다, 점진적인 정치개량과 입헌 정치의 실현을 주창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근대국가 수립(민권 달성)과 약육강식과 제국주의 세계를 극복하는 방안(독립 운동)이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행사항을 설정/추구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출발과 깊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4) 朝尾直弘 외, □□새로 쓴 일본사□□, 이계황·서각수·연민수·임성모 역, 창비, 2003, 414쪽.

小森陽一, 앞의 책, 163쪽. 호시 토오루(星亨)와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 자유당 계열의 활동가들이 1886년 10월에 전국유지대간친회를 열어,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목표로 하는” 방향에서 자유당과 개진당의 대립을 뛰어넘어 반정부운동을 위해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 3. 연애의 정치성, ‘러브’의 지향성과 정치적인 연애

#### 3.1. 사적인 욕망의 표출과 ‘러브’와 거리 두기

“하루씩 세간에 드문 당신의 그 인품 한번 뵈고 나면서부터는 정말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만, 재학(재주와 학식)도 없고 자재(재산)도 없는 쿠니노모토이의 배필로 당신은 과분하기만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의(은혜와 의리)가 있는 당신**입니다. 고난에 들어서도 힘이 되고자 합니다만, 저번에 당신에게 삼가 받았던 것에는 모친의 유언도 있어 혼약했던 분을 찾고 있다면 당신의 부탁은 표면상 세간에 어떻게라도 말을 퍼뜨려놓고 때때로 그 분의 소재를 찾는 당신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하루는 다소 유감스런 안색으로 “아닙니다. 전에 저의 집에 양자로 올 예정이었던 분은 저도 만난 적은 없사옵고 가출을 해서 곧 오년이 되어감으로 양친이 살아계셨어도 **언제까지라도 그 사람에게 의리를 지킬 뜻은 없습니다.**”<sup>45)</sup> (강조는 인용자)

“그것은 천만의 폐를 끼치는 이야기로, 어젯밤 열 두 시경에 돌아온 것은 마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일은 생각해 본대로 가와기 시의 책략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서(유언장)까지 숙부에게 건너가 버린 이상, 이 후의 당신께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루) “귀군에게 그 일 등을 상담 드리고자 생각했기에 어젯밤 돌아온 것을 듣고 속히 편지를 올려 상태를 묻고자 했습니다. 쿠니노씨 귀군의 의심이 풀리고 저를 불

45) お春さん 世間に稀れなる貴女の御人品 一度お目に掛つてからは誠にお慕はしく思ひますが才学もなく資材もない匡野基の伉儷に 貴女は少しく御不当では御坐いませんか 固より私の為めには**一通りならぬ恩義のある貴女のこと**ゆゑ 水火に入つても御力にはなりませうか先日貴女より承はつた処では御母君の御遺言もあり御契約のあつた御方を尋ねて御出で あれば貴女のお頼みのことは表向き世間へ如何とも吹聴を致して置き 俱々に其の御方の所在を捜し 貴女の御宿念を晴したいもので御坐います と聞いてお春は少し悔しと思ふ顔付にて いエ前に私の内へ養子に参る筈の人は私も逢つたことは御坐いませず 家出をしましてから早や五年になりますから 両親が生きて居りまして何時までも其の人に義理を立てよとは申しますまい(490-491)

민하다고 생각해 주셨다면 아무쪼록 저의 부탁을.” (쿠니) “당신의 부탁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다시 말하자 하루는 얼굴을 붉히면서 머뭇머뭇 거렸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고, “쿠니노씨 귀군은 아직 공식적으로 혼약을 하신 분도 계시지 않으니까 실로 폐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몸은 지금도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무쪼록 한 명의 여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귀군과 제가 부부가 되는 혼약을 했다고 숙부에게 표면상 교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큰맘 먹고 딱 잘라 말한 후 재차 얼굴을 붉히며 소매로 얼굴을 가린다. 이 때 쿠니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잠시 대답하는 것을 잊었지만, 이윽고 위의를 정돈하고<sup>46)</sup> (강조는 인용자)

원작에서 파격적인 것은, 두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단순히 연애결혼을 하기에 앞서, 숙부의 간고를 빠져나가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한다는 점이다. ‘러브’라는 감정을 숨겨야 할 것으로 알고, 쿠니노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하루를 “은인(恩義ある人)”<sup>(485)</sup>이라 칭하며 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위장결혼의 제안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나, 하루가 친숙해진 쿠니노를 자기 방에 불러 같이 사진첩을 보던 중 “마이 러버(マイラバー)”라는 사진을 손으로 가리는 장면 등은 러브라는 감정의 표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설장에서 어떤 여자가 줄곧 쿠니노를 쳐다보았

46) 夫れは迷惑千万の話で 昨晚は十二時頃に帰つて来たのはお松も能く知つて居ります ソシテ是れまでの事はお考へ通り **川岸の策略**に違ひありますまい だが証書まで叔父さんへお渡しになつた日は此の御稱致さうと思ひましたから 昨晚もお歸りになつたのを聞くと早速手紙を上げ御様子を伺つたので御座います 国野さん 貴君の御疑念が晴れまして私を不憫と思つて下さいますなら何卒私の願ひを (国)貴女の御願ひと仰しやるのはな ト問ひ返されてお春様顔を赤らめモジへとして居たりしが 茲が大切な処ぞと思ひ直し 国野さん 貴君は定めて外に御契約をなされた御方も御座いませうから 定めて御迷惑とは思ひますが 私の身は只今もお話し申しました通りで御座いますから 何卒一人の女を助けると思つて 貴君と私と夫婦になる契約をしたと叔父へ表向に掛合つては下さりませうかと思ひ切つて言放ち 再び顔を赤らめ袖にて面を掩ふ 此の時国野は覺えず満身に冷汗を流し 胸もドキへとして姑く答ふことを知らざりしが 稍やあつて威儀を整へ (490)

다는 것을 말하며, 서로 러브(ラブ)하는 거 아니냐고 놀리는 친구의 말에 극구 부정하는 모습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여기서 러브는 연애(恋愛)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我が愛す人の義)를 뜻하기도 한다. 이들은 스스로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그 사랑이라 칭하는 러브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원작의 ‘러브’는 번안작에서 “금석같이 무거운 언약”(74)으로 대체되어 있다. 게다가 원작에서 하루가 더 이상 약혼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시기가 지나면 쿠니노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반해, 번안작에서 장매선은 항상 심랑의 사진을 품고 다니며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져 있다.

벽상을 우연히바라보니 금식으로 썸인들에 사진흔장을 걸었는듯 자기의 얼굴과 흡스흔지라 마암에 경야하야 압호로 갖가히가 본즉 분명자기의 사진이요 **그밧헤 혼귀글을 췌스되 금석갓치 무거운 언약(74)이여 죽기를 혼호고 저바리지못호리로다** 혼야갓거늘(75) (강조는 인용자)

미선이 부친의유언을긋게직히고 **심랑의 사진을 항상품에품고 그사름을맛나 평생의탁고자**하야 녀학교에 드려 공부도 활겸 (...)이에 사름만히 모힌연설장마다 좃차단기며 살펴 보더니 다형히 독립관 정치연설호는날 **마암에 사모호던얼굴을보 왔스나 다만 그 성이갓지아니**혼을 혼탄호던츠에 복호사에서 다시보앗스나 여자의 수괴호마암으로 참아 먼져 말을못지못호고 혼갓 글을지어 그 뜻을시험호뿐이오 종시반신반의호야 진녕지못호더니 이곳에서 데삼차상봉호야 다시보고 췌볼스록**심랑의 사진과 십분무의**호지라(42) (강조는 인용자)

번안작에서 장매선은 심랑과 얼굴은 비슷하나 다만 성명 확인을 직접 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것으로, 보다 거리가 차단된 남녀 관계의 설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이태순과 장매선은, 한번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태순의 본래 성씨가 심씨로, 그동안 기다려온 정혼자 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자신의 방에 걸어두었던 사진의 얼굴

과 그대로임은 물론이다. 이는 원작에서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쿠니노와 하루가 서로 성씨를 잘못 알고 있었고(후카야 우메지로 → 쿠니노 모토이/ 토미가와 하루 → 후지이 하루), 늘 정혼자의 사진을 들고 다녔던 하루가 못 알아볼 정도로 쿠니노의 살이 빠져 버려 그 외관이 다소 바뀐 상태로, 대조적인 여건이다.

쿠니노와 하루의 관계를 대변하는 이태순과 장매선의 관계에서, 번안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된 부분은, 1)감옥으로 보낸 비밀 편지 부분과 2)하코네와 키가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지는 대목 3)쿠니노가 술에 취해 광분하는 부분 그리고 오해를 풀고 4)하루와 쿠니노가 위장 결혼에 합의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했던 숙부가 쿠니노에게 남겨진 진짜 유언장을 가르쳐주어 정치자금의 확보 및 하루와의 결혼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부분이다.

부연하자면, 감옥으로 보내진 편지가 백반으로 쓰여 있어 우연히 물에 적신 후에 그 편지를 보게 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의 생략이나, 쿠니노의 방을 즉시 하루가 방문하여 통성명을 하는 대목은 단지 이태순이 장매선의 행방을 따라 북한산에서 문산포로 향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이 둘의 대면이 작품 중간에는 아예 허용되어 있지 않는 것과, 이태순이 신문에 난 기사와 마즈다에 해당하는 송교관의 계교에 따라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나, 일단 하루의 편지내용을 읽고 나서 화로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sup>47)</sup>, 번안자가 적절히 남녀의 만남을 통제하고 있고, 감정을 최대한 억제 시켜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작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 남녀가 서로의 방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 감정의 표출에 한계가 없어 평소에 보여주는 작중인물의 감정의 변화의 기폭이 크다는 점, 여자 측에서 먼저 결혼이라는 말을 제안하여 성사시키는 점 등은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측면들로 번

47) 태순이 보기를 맞치리 작야에 보던신문과 송교관의말이 문득생각이나라며 그편지 보기도 자기몸을 드레올듯하야 쭉쭉찌져 화로에드리트리고 정대훈말로 금년다려이르되 이다음에는 이갓흔서간이 오거던밧아드리지 말지어다(70)

안작에서는 자연스레 소거되어 있다. 또한 이태순과 장매선은 겨우 북한산에서 시조 몇 구절을 주고받았을 뿐, 직접적인 만남은 결말에 가서야 가능해지는데, 번안자는 결혼이라는 결말을 원작보다 조금 더 앞당겨, 이미 실패한 정치에 대한 희망보다는 결혼이라는 현실 가능한 행복의 실현을 강조해 놓고 있다.

요컨대 번안작에서 남녀의 만남과 연애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지 이태순이 장매선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서로 재회하기까지의 시간의 길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는데, 하루는 쿠니노가 오년 전에 아사쿠사에서 찍고 하루 부친에게 주었던 사진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장매선은 이태순과 혼담이 오갈 적인 열세 살 때의 사진을 지니고 있으니, 그 정혼자를 기다리는 모습은 신여성적인 하루와 구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장매선이라는 차이를 낳으며, 연애를 꿈꾸는 여성과 연애를 바랄 수 없는 여성이라는 차이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연애와 정치가 결합되어 정치소설의 완성을 이루는 원작과 연애와 정치성이 거의 생략되어버린 번안작이라는 작품 성격의 차이와 직결된다.

### 3.2. ‘여성운동가’와의 결합을 통한 이상적인 정치의 실현

하루라는 인물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상이라기보다,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변한다. 작품 속에는 “女丈夫”라는 단어가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 “여장부”라는 말은 당시에 공공연히 의도적으로 사용된 바 있는 용어이다. 하코네에서 처음으로 하루를 보았을 때 모토이가 느꼈던 하루의 첫 인상은 ‘보기 드문 여장부’라는 것이다. 연약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자신보다 높은 재력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학식과 비견되는 지식을 지니고 있어 같이 연인이 되고 싶거나, 하루가 정혼자가 있고 자신도 한 여자를 책임질 경제력이 아직은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치를 도모하는 동지로서라도 가까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한다.

본래 저는 시골에서 여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쿄에 와 보니 여자의 풍기(예의범절)를 개정하는 등 세간에서 팔개월간 들리는(한) 것은 상등의 부인들에게 다소 허용된 영어를 학습하든가 무도(회)의 학습을 하는 것이 고작으로 그간에는 누구도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없이 지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를 도와 구미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도 조금은 정사(정치)상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두 번 정도 이부부라의 연설회에도 방청하러 갔습니다만, 남들만큼 뛰어난 귀군(쿠니노)의 연설을 사모하게 된 중에, 우연히 들으니 어려운 가계에 처해있다 하여 그런고로 미흡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도 모친의 유언을 지키고자 찾는 사람이 있는 몸이라, 경박하게 이름은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 위에 귀군의 기질에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여자의 처지로 주제넘은 짓을 했다고 성내시고 금전을 돌려주시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름을 숨기고 사내의 편지체로 썼습니다만, 그것이 혐의의 하나가 되어,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저 시(가)에서도 동일하게 귀군같은 사람도 긴 감옥생활의 고됨으로 뜻을 굽히는 일이 있을까 지나치게 걱정하여,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라 친시하고 틀림없이 화도 내시겠지만,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sup>48)</sup>

48) 元と私は田舎で女教師をして居りましたが 東京へ出て見れば 女の風儀を改正するなど 世間でハハ間敷云ふもの 上等の婦人方さへ少し許り英語を習ひなされるとか 舞踏の稽古をなさるか 精一ばいで 其余のことは誰も心掛る人が無い様で御坐います 此世の中で男子を助け 米諸国と肩を比べる様にするには女にても少しは政事上のことを知らねば成らぬと思ひまして 一兩度井生村の演説会へも傍聴に参りましたが 人並勝れし貴君の御演説お慕はしく存じます内に 不図聞けば御難儀の筋があるとやら 夫れゆゑ及ばずながら御力に為つて上げたいものと思ひましたが 私しも母の遺言を守つて尋ねる人のある身の上なれば浮かとも名前を出されませず 其の上貴君の御氣質にて近づきもなき女の願に差出かましいことをするトお憤りなされて金子をお返しなさるは必定と存じましたからワザと名前を隠して男の手紙の様に書たのですが 夫れが御難儀の一ツになりましてサゾ御迷惑なことで御坐いましたらふ 又アノ歌とても同様に 貴君の様な御人でも長い牢屋のお苦みて御志の屈することもあらふかと思ひ過して 前後の考へもなく致したことで御坐います 馬鹿な女と御覽視のうへ定めてお腹も立ちませうか幾重にも御慰弁を願ひます(408-409)

엄밀히 말해, 하루가 ‘여장부의 마음’을 지녔다고 감탄하는 것은, 쿠니노 자신을 재정적·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대목에서이다. 위의 인용문(상편의 마지막 제 7회)에서 무서명의 편지로 인해 난처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라 고백하며 쿠니노가 화를 내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하루의 예상과 반대로, 쿠니노는 자신이 생활비가 없어 곤란했을 때 하숙비를 보내주고, 감옥에 있을 때는 격려편지를 보내주었던 당사자가 하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쿠니노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여장부의 마음(今の世に珍らしき女丈夫の御心底)”을 지녔다고 찬사한다. 하루는 또한 약혼자를 기다리던 중에, 여학교에 다니며 영어 학습 및 정치 공부를 위해 연설회를 다닌 바 있는데 이 점은 쿠니노가 자신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동지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연적 변호사 가와기시의 눈에는 서양지식을 갖춘 교양 있는 부인의 상으로 하루를 시대에 적합한 결혼 대상으로 간주하게 한다.

하편의 마지막 제 8회에서 서로가 정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부부가 될 것임을 맹약하고 서로에게 당부하는 사항을 언급하는 데, 쿠니노가 단지 토미나가(冨永) 가게의 양자가 되어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쿠니노라는 독립된 가장으로서 인정해 줄 것 그리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지는 것, 즉 개인적인 바람을 제시한 것에 반해, 하루는 결혼 후에도 학문에 정진하여 사회사업에 공헌할 것 그리고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가사를 영위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유산을 재정적인 기반으로 삼고 국가 사업에 진력할 것을 당부한다. 즉 결혼 후에 평범한 여성처럼 안락한 삶, 하다못해 숙부의 부부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의 영위가 아닌, 최소한의 생활로 현재의 자금을 공적인 사업에 투자하지는 사안을 내용음으로서 국가사업에 도모하지는 발상에 감동한 쿠니노가 하루를 일컬어 “조금도 변함 없는 여장부의 심중(今に初めぬ女丈夫のご心底)”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동일한 맥락이다.

요컨대, 원작에서 여자주인공인 하루는 ‘정치감각이 있는 여성’이자 쿠니노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차후에 실질적인 ‘정치자금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변안작에서 여자주인공인 장매선이 ‘보호의 대상’으로서 이

미지가 강화된 것과 대조된다. 번안작에서 작품 초반에 장매선이 이태순의 하숙비를 대는 등,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면은 원작과 동일하지만, 그 후원은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태순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

#### 4. 근대정치가 결합된 해피엔드, 이상적인 국가의 설계

작품 □□雪中梅□□를 알레고리성이 강한 작품으로, 쿠니노 모토이(国野 基)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나라의 기반’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하루(春)라는 ‘계절의 봄’이 결합된 결과, 나라의 봄이 찾아오는 것은 곧 나라의 기반이 되는 국회가 개설되는 것이며, 국회가 개설되기까지 시련이 불가결했다는 사실과 대입시켜보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통용되어 온 바 있다.<sup>49)</sup> 쿠니노와 하루의 결혼은 곧 국회개설이라는 밝은 미래의 알레고리로, “나라의 봄”<sup>50)</sup>이 찾아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번안작에서는 서두에서 기술한 바대로, 국가의 봄이 피어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결혼이 성사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길일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남겨줄 뿐이다. 이것은 번안작이 결코 원작과 좁힐 수 없는 차이, 즉 ‘위조된 유언장’에 가려진 ‘진짜 유언장’의 등장, 정치적 자금을 제시해주는 ‘미래에 대한 유언’의 유무로 나타난다.

이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 자금을 획득하는 쿠니노는 그의 정치 사업을 실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지지자를 소유하게 된다. 원작은 본격적으로 그 정치적 실행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체계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고, 앞으로의

49) 三好行雄, 竹盛天雄, 吉田熙生, 浅井 清 편, □□日本現代文学大事典□□, 明治書院, 平成6年, 513쪽.

柳田泉, 「末広鉄場研究」, □□政治小説研究□□(中), 春秋社, 昭和43.

50) 前田愛, 「雪中梅の富永春」(末広鉄場), □□国文学□□(10月臨時増刊号), 第14卷, 昭和44. 137쪽.

행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쿠니노가 정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다. 이에 반해 단순히 사진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종결을 보는 변안작에서는 정치적 자금에 대한 내용의 진짜 유언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에는 정치적 후원자도 국회가 개설되는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글에했앗스되 나의사후에 녀식미션으로 집주인을삼고 그티는 뒤비보  
는사람이되야 일가의 직산을정리하야 주심을바라노니 일즉이녀식을 심량  
과결혼하야 다털사회 삼기를경영하얏더니 그후에 심량이 종적을감초와 간  
바를 아지못하니 만일나의사후에 삼년니로 심량이도라오면 전 언약을쫓차  
부부를삼고 일가의직산을 사양하야 줄것시오 만일 이그한이지나도록 심량  
은 도라오지아니하고 미선이달은곳에 출가하기를 불궁하거던 직산을십분  
의일만 분깃하야주어서 각거하계하고 장씨의 후를이를사람을 양자하야 영  
구히 직산을 보전케함을 원하노니 아모조록 범연이 마심을 바라노라(56)

위의 인용문은 장매선의 숙부가 장씨 일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꾸며낸 유언장이다. 이에 따르면 데릴사위로 기정한 심량이 돌아오지 않고 매선이가 다른 곳으로 출가하기를 따르지 않을 때는, 다른 양자를 얻어다가 재산을 보전하고 매선에게는 재산의 십분의 일만 주고 내보낸다것으로, 오로지 재산 분배에 대한 사항만이 기술되어 있다. 이 유언은 원작에서 숙부가 가와기시와 짜고 위조한 유언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변안작에 진짜 유언장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표면적으로 심량이라는 데릴사위를 얻어다가 장씨 일가를 보전하겠다는 개인적인 소망만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다.

원작에서 제시된 진짜 유언장의 핵심은 단순히 데릴사위를 들여 집안의 명맥을 잇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보다 국가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예비 정치가를 키울 심산이 들어 있다. 정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미래의 정치사업에 일조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맥락에서 남녀주인공의 결혼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의

획득으로 전환된다. 즉 결혼과 정치활동이 깊게 맞물리는 형국으로, 일본의 정치소설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약화된 연애 서사와 미비한 정치활동의 묘사로 일관된 번안작 「설중매」는 결혼과 정치활동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이태순의 뜻에 따르고, 그를 받드는 정신적 지지자의 획득만큼은 확고히 하고 있다. 거대한 정치 자금은 없지만, 적어도 이태순이 가사보다 정사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생활 자금은 보장되며, 쿠니노처럼 자금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정치적 무대는 없지만, 나를 버리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겠다는 정치력을 향한 정신적 기반만큼은 동일하게 표출되고 있다.<sup>51)</sup>

구연학이 말하는 정치가의 기본자세는 굳은 절개로 압축된다.<sup>52)</sup> 이태순에게 요구되는 절개는 ‘나라를 향해’ 투사된 것이다. 국가를 향한 절개를 가지고 국가사업에 임하는 자는 미래의 정치가라 호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절개는 정치 사회의 개혁을 이룰 뜻으로, 시련에서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표출이 차단된 조선의 정치는 외면적인 정치자금의 획득보다 이러한 절개의 신장, 즉 나라를 향한 정신의 집결이 우선적인 과제였을 것이다. 번안작에서 남주인공은 정치적 활동의 재목을 찾으려 했던 원작의 의도보다 단지 적절한 사윗감이라는 결혼 대상으로만 축소되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절개)이 있는 인물로서 지목된 것은 동일하다.

한 가지 번안작에서 특이한 점으로, 이태순의 온유한 성품과 극대화 된

51) 자네는 량친이계셔도 부득이한 경우를당하면 **나라를위하여 몸을바릴 결심이잇는**가 태순이그말을듯더니 한참주목하여 성조를 보다가갈으디 이는별로히 무를바아 나라 나도 사회를 조직하여 세상에 행복이될바 잇실진디 **몸을바리더리도 사회를위하여 힘을다홀지니** 구구히 목전의간고함을 두려하면 즈손을위하여 행복의사회를 성립지못흐리니 나도대담은못흐나 사회에 나간후에는 아모리불행한일을 맞날지라도 뜻을 변치아니홀지며 부모도응당 허락흐시리로다(19)

52) 그러나 굳음이궁극함이 일양이회복함은 텃디의 덧덧흐리치라 맛참너 **한호결의선** 빙가세상에나서 **성심으로 상하를감농하고 사회를조직하여 점차로 정치개혁홀소상을 일으키라**함이 풍설에간고함을 도라보지아니하고 빅화의괴수가 되야 춘식을 만회코져하니 언의사람이 그늬흔절개를 흠모치아니리오(7)

‘온정주의’를 들 수 있다. 원작에서 쿠니노와 대조적인 가와기시는 인정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라도 해내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는데, 이런 성향은 쿠니노보다 그가 번안된 이태순에게 와서 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이태순은 자신을 속이고 장매선을 궁지에 빠뜨린 변호사 하상천과 송교관 그리고 숙부 권침사를 ‘강경한 수단으로 통쾌히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치욕을 씻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복수심을 용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태순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죄는 무겁지만 그들처럼 가혹한 수단을 취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사람은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는 사람을 저버리지 말나”는 말을 빌려와, 마치 괴물과 싸우면 괴물처럼 된다는 원리에 따르는 듯, 온정을 베풀어 그들 스스로의 반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권 침사는 생각 없이 물욕에 정신이 팔려 하상천의 술수에 이용당한 “불상흔 인류”(78)에 속하니, 그동안 무단으로 써버린 재산의 내역서를 없애줌으로써 용서해주자는 사안을 장매선에게 제시한다. 이에 장매선도 동의하여 그에 따를 것을 말하는데, 이는 원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원작 □□雪中梅□□에서는 하루 스스로가 숙부를 용서하고 있다. 단지 재물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질렀을 뿐이니, 숙부에 대한 미움은 없다고 말해버림으로써, 그 스스로 용서를 베풀고 있으며, 쿠니노는 숙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역량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상적인 국가를 향한 열망은 동일하지만, 강도와 접근방식은 현실의 무대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만큼 그 속에서 바뀌었으며, 이는 원작과 번안작 간의 내적인 거리를 가져왔다.

요컨대 1886년에 출간된 원작과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를 두고 번안된 설중매는, 시간적인 차이와 함께 조선이라는 특수한 공간적인 차이로 인해 원작과 상당히 다르게 번역되었다. 즉 있는 그대로 일본의 시간과 공간을 옮기는 번역이 아닌, 조선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한 세계로 교체시키는 번안을 해 놓은 것이다. 미래의 행복을 향한 결혼의 행진은 동일하지

만, 현실적인 기반에 따라 축소되고 변용되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정도의 차에 관계없이 이상적인 국가의 건립으로 나아가며, 이는 잠재적으로 작품 속 깊이 포진되어 있다. 이것이 정치 서사가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 변성하고 현재까지 존립해 온 이유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독립신문□□

具然學(1908), 「설중매」, 회동서관. (□□新小説翻譯(譯)小説 3□□, 亞細亞文化史, 1978.)

末広鉄揚(1886), 「雪中梅(上),(下)」, 박문당. (□□政治小説集□□, 山田俊治校注, 岩波書店, 2003.)

### 2. 국내 자료

강만길·송건호(1982), □□한국 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菅光晴(1999), 「『雪中梅』의 翻案樣相」, 서울대 석사논문.

권영민(1999),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출판부.

芹川哲世(1975), 「韓日開化期政治小説의 比較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김윤식·정호웅(2000),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김태준(1933), □□朝鮮小説史□□, 淸進書館.

백철(1953),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小森陽一(2003), □□일본어의 근대□□, 정선대 역, 소명출판.

신근재(1984), 「19世紀末-20世紀初 韓·日小説에 나타난 近代意識의 比較研究 -<雪中梅>를 中心으로」, □□일본학□□,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신동욱(1981), 「신소설과 서구문화수용」,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신용하(2005), □□한국근대지성사연구□□, 서울대출판부.

안중화(1954), □□新劇史이야기□□, 進文社.

유기룡(1981), 「具然學의 <雪中梅>, 그 작품적 특징」, □□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사.

田尻浩幸(1995), 「신소설 □□은세계□□와 일본 정치소설」, □□어문연구□□ 8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전광용(1986), 「雪中梅 考」, □□신소설 연구□□, 새문사.
- 朝尾直弘 외(2003), □□새로 쓴 일본사□□, 이계항·서각수·연민수·임성모 역, 창비.
- 中村光夫(2001), 고재석·김환기 역, □□일본 메이지 문화사□□, 동국대출판부.
- 최기영(2003), 「러일전쟁 발발 직후 지식인의 정치개혁론-1904년의 ‘정치경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 최원식(1991), 「雪中梅’ 연구」, □□한국학 연구□□ 3,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 표세민(2004), 「□□셋췌바이□□와 □□설중매□□의 계몽주의-남여 인물조형을 중심으로」, □□日本學報□□(第61輯 2卷).
- \_\_\_\_\_ (2005), 「한일 근대문학의 「정치」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정치소설과 신소설의 ‘남여’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第13輯, 동아시아일본학회.

### 3. 국외 자료

- 南富鎮(2006), □□文学の植民地主義-近代朝鮮の風景と記憶□□, 世界思想史.
- 柳田泉(1936), 「末広鉄場研究」, □□政治小説研究□□(中), 春秋社.
- 林原純生(1991), 「政治小説 ‘雪中梅’を論ず」, □□日本文学□□ vol.40.
- 牧原憲夫(1988), 「民権と国権」, □□日本の歴史□□, 週刊朝日百科.
- 兵藤裕己(2002), 「明治のパフォーマンス-政治演説と芸能」, □□感性の近代□□, 岩波書店.
- 三好行雄, 竹盛天雄, 吉田熙生, 浅井 清 편(1994), □□日本現代文学大事典□□, 明治書院.
- 越智治雄(1984), 「政治小説における「ノベル」の意味-□□雪中梅□□と □□外務大臣□□」, 岩波書店.
- 前田愛(1970), 「雪中梅の富永春」(末広鉄場), □□国文学□□(10月臨時増刊号), 第14卷.
- 陳力衛(2005), 「□□雪中梅□□の中国語訳について」, □□文学研究□□ vol.93.
- 坂本多加雄(1999), □□明治国家の建設(1871-1890)□□, 中央公論新社.
- 平田由美(2002), 「<議論する公衆>の登場」, □□近代知の成立□□, 岩波書店.
- 和田繁二郎(1967), 「□□雪中梅□□ □□花間鶯□□ 試論」, □□立命館文学□□ 264.
- 丸山真男(1961), □□日本の思想□□, 岩波新書.

38 인문논총 제59집 (2008)

慎根(2006), 「末広鉄腸の〇〇雪井梅〇〇と具然学の〇〇雪井梅〇〇」, 〇〇日韓近代小説の比較  
研究〇〇, 明治書院.

真辺美佐(2006), 〇〇末広鉄腸 研究〇〇, 梓出版社.

稲田雅洋(1996), 「民衆と革命」, 〇〇歴史学事典〇〇(第4卷), 弘文堂.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

## The diversity of the Korean New Novel by accepting Japanese Political Novels

– Comparing Koo Yeon-hak’s *Seoljoongmae* with Suehiro tetcho’s *Setchubai*

Roh Yeon Sook

This thesis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Suehiro tetcho’s *Setchubai*( 雪 中悔 ) and its adapted version, Koo Yeon-hak’s *Seoljoongmae*( 설중매 ) and to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ter. *Setchubai*, the original text is one of the Japanese Three Political Novels including *Kajin no kigu*( 가 인지가우 ) and *Keikoku bidan*( 經國美談 ). Especially, *Setchubai* kept up with Jiyu minken undo(the m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in Japan). The statement that there was a *Setchubai*’s era in the Japanese political history is still valid because there was actually the era that Literature and Politics were naturally combined. This inevitability was demanded in the other oriental countries: China, Korea. *Setchubai* was adapted in China in 1903 and in Korea in 1908. In China at that time, the political narrative was high-positioned thanks to Liang Chitsao’s assertion of the usefulness of novel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 novel was regarded as a guide to the civilization or an enlightenment text, not the political narrative.

The adapted version, *Seoljoongmae* had a name of ‘a political novel’. It

was one of the Korean Three Political Novels including Yi In-jik's *Eunsegae* (은세계: the Silver World) and Yi Hae-jo's *Jayoojong* (자유종: the Freedom Bell). Especially, *Seoljoonmae* has a story that the hero performs political actions while the other two don't. As it were, *Seoljoongmae* is a political narrative that reflects the Korean political realities at that time rather than the New Novel that has an insignificant politics or the political novel that is deformed and imperfect. Because Koo Yeon-hak's *Seoljoongmae* brought a hero who was to perform the political actions in 1890's situation when Dongnip hyupoe(독립협회: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was leading various activities positively.

In this work, the hero and the heroine want to reach to the ideal nation beyond the happy home. *Seoljoongmae* shows that it's the most important to get the spouse with whom they can take part in accomplishing the national business. The love narrative accepts the modern politics and thus it is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narrative where the marriage means the coupling with the spouse who can develop the national business.

The adaption, *Seoljoongmae* has the same story and plot of the original, *Setchubai*. In addition, the marriage in these work has the same meaning as it represents the attainment of the ideal politics though the former didn't show it as definitely as the latter. This difference made the emergence of the Korean political narrative possible because Koo Yeon-hak, the writer of *Seoljoongmae* accepted the political realities in Korea while adapting Suehiro tetcho's *Setchubai*.